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64호_발행일 : 2003년 12월 28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3년 교회표어: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성탄축하예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지난주 목요일(25일)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오신 성탄절이었다. 우리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 장소(중예배실, 소예배실, 자모실의 각종 부속실)를 다 개방하여 영상과 음향을 연결시켜 교회학교를 포함한 단 한번의 연합예배를 드렸다. 예배 시작과 끝 전후 20여분은 1층 로비에서 고등부 관현악팀이 성탄절에 맞는 곡을 잔잔히 연주했다. 또한 예배 한 시간 전부터 주차 안내부와 봉사부원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었다. 10시 30분, 김원재 목사의 인도와 한운경 장로의 기도, 시온, 샬롬 연합찬양대의 '할렐루야', 그리고 유아, 유치부와 초등부의 성탄 축하 순서가 있었다. 문동학 목사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는 제목의 성탄 메

시지를 전했다. 문동학 목사는 설교에서,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은유적 명칭 가운데 성탄절 메시지로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했다. 빛은 기본적으로 열과 밝음과 에너지가 있으며, 또한 빛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빛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 2면에 계속



[성탄축하 연합찬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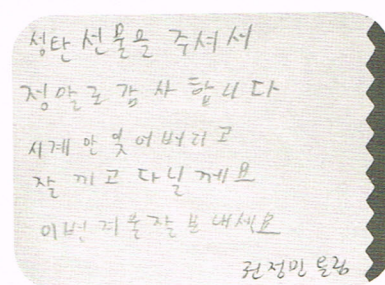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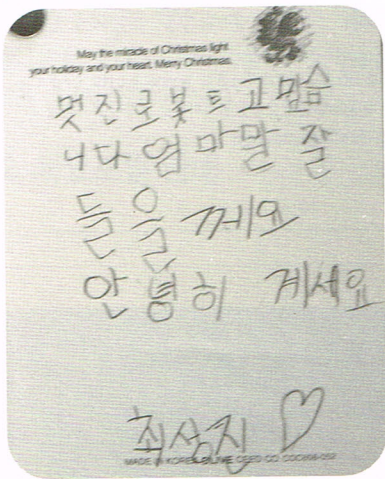
지난 수요일(24일) 성탄절 이브 저녁 8시에 우리교회 대예배실에서 시온과 샬롬 연합찬양대와 델로매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헨델의 메시아 1부 '예언과 탄생'이 실연되었다. 김성관 목사의 인도와 윤좌원 장로의 기도로 시작한 이 음악회는 성탄절 이브 밤을 고요하고 거룩하게 맞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족시켜주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찬양 대원들이 오랜 기간동안 연습한 느낌이 공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이 거뜰해질수록 더욱 강하게 풍겨 나왔다. 4명의 솔리스트들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연합찬양대가 너무나 잘 어울려진 음악회였다. 그리고 이 날

공연의 가장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가 찬양될 때는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들과 함께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문동학 목사의 격려와 축도로 이 날 모든 음악회 순서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지휘는 박치용 집사, 소프라노 이혜정, 앨토 이현정, 테너 이단열, 베이스 장철, 오르간 송은혜 집사가 수고해 주었다. 참석한 인원은 본당 대예배실을 가득 메웠으며, 봉사부에서 다과를 준비해 주어서 행사 이후에 1층 로비에서 성도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이 연주하고 찬양했던 헨델의 메시아곡처럼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저 이라크 땅과 세계 곳곳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총성과 테러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나귀타고 오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곳곳에 부정부패와

>>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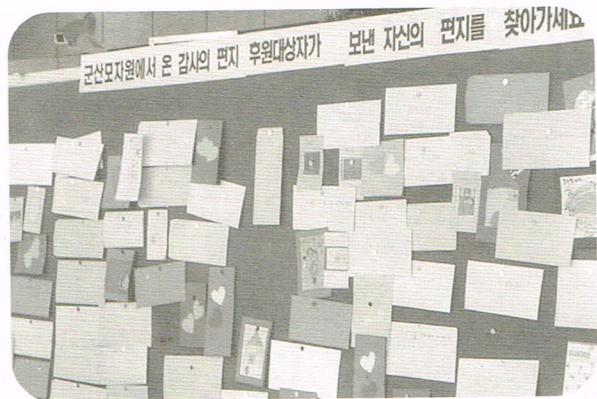
[군산 신광모자원에서 날아온 감사의 편지]

멋진 로봇트 고맙습니다



우리교회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 군산 신광모자원과 순천 S.O.S 어린이마을에 있는 복지시설에 사랑의 카드와 성탄물품을 보내주는 행사를 했다. 선물을 보내는 방법은 먼저 군산과 순천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선물의 명단을 받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명단을 보고 자신이 후원할 수 있는 선물을 선택하여 1:1로 해당 아이에게 카드와 선물을 보내주는 사랑의 나눔 행사였다. 12월 14일자 함줄함을 1면에는 군산 신광모자원을 섬기는 우리교회 김미숙H 집사로부터의 감사의 편지를 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주(12월 21일)에는 교회 1층 로비에 군산 신광모자원에서 날아온 아이들의 감사의 편지를 게시한 일이 있었다. 이 감사 카드와 편지는 이번 행사에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교회 후원한 성도 한 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적어 개별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드와 편지를 보낸 것이라 너무나 뜻깊었고,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도 게시된 카드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게시판에는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고마운 성도님들의 성함이 적힌 감사 카드와 편지가 눈에 띄었고,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적은 뽀뽀뽀뽀한 글씨체로 쓴 글씨지만, “멋진 로봇트 감사합

니다.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성탄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계 안 잊어버리고 잘 끼고 다닐게요. 이번 겨울 잘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도 있었다. 예수님이 이 추운 계절 그리고 천하고 천한 낮은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섬김”이었다. 올 겨울 마음과 영혼에 추위를 겪고 상처와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교회가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어 정말 가슴 기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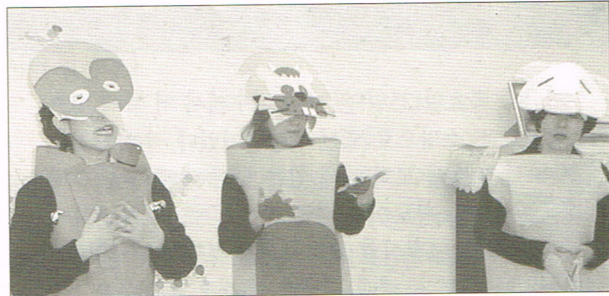


성탄축하예배 >> 1면에서 계속

항상 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빛처럼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창조의 주님과 역사의 주님으로서 살아계심을 설교했다.

올 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분야와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크게 맞이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처럼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 계속적으로 빛이요, 생명이시며, 진리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처럼 빛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주 안에는 확인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어두운 물질(dark matter)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물질이 있었기에 은하계와 태양계가 상대적으로 농축되어 존재함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현재 세상에 소망과 진리와 소망이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빛과 소망의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올해 성탄절은 다른 어느 해보다 어둡고 무겁고 밝지 못한 해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빛으로 더욱 밝게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과 존재이유를 확인시키고 더욱 분명하게 결단하도록 만들어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었다.

어둡고 차가우며 소외받고 상처입어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 시간이었다.



성탄축하 연합찬양 >> 1면에서 계속

부도덕과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두렵고 의로우신 심판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절규하며 지금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지금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심지어 종교계에도 만연해 있는 총체적인 문제와 어두움에 큰 빛으로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나의 귀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 두지 맙시다



이번 주일에는 1층 로비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자원봉사연결박람회가 열린다. 이 행사를 갖는 취지는 교회 내 곳곳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 내 무슨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해 봉사하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회 내 봉사를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역팀과 다양한 부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행사를 하루 개최한다. 지난주 주보에 교회 내 다양한 봉사부와 사역팀 목록(교회학교 포함)을 소개한 브로셔를 배부했으며, 교회 내 어떠한 형태

로든 자원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는 배부된 용지나 안내 데스크로 가서 원하는 부서와 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내년 교회에 원하는 봉사부서와 사역팀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팀이나 부서와 연결해 준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리라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청년부 중창팀]

준비된 합창은 아름다워



12월 18일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 청년부 중창팀 '예그리나'가 아름다운 합창을 했다. 4부 예배만 드린 후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버리는 것이 아쉬움을 남겼지만 모두들 모여 자리를 채워앉았고 강당조명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내 남녀중창팀 예그리나가 하얀 난방에 앙증맞은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 성도들은 그들의 의상에 환호하며 기대의 소리로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피아노선율을 따라 합창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화음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숨죽이며 들으려는 성도들로 인해 더욱 청아하게 들려오는 음색. 그 뒤 스크린으로 준비된 연습장면과 짧은 편지글을 함께 보았다.

찬조출연한 young.H.O.N 워십팀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린이아이같이 기뻐하는 춤을 추었다. 다음 순서로 산타복장을 한 유상렬 전도사와 김정민 자매의 듀엣으로 귀엽고 발랄한 찬양과 춤을 선보여 관중들의 열렬한 갈채를

받았다.

아름다운 곡에는 나뭇의 정성이 항상 함께 했다. 멤버가 부르는 플롯소리에 맞추어 합창을 부르기도 하고 청바지에 목도리, 그리고 산타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등 의상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또 촛불을 밝히고 찬양할 때는 마굿간에 탄생하신 아기예수의 그림이 스크린에 그려져 예그리나가 마치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을 연상케 하였다. 합창 중간에 남성중창의 갑작스런 장난스러운 몸짓도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다.

다양하게 준비된 10여 곡이 어느덧 마치자 성도들의 앵콜박수가 터졌고 예그리나는 앵콜곡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고 기쁨으로 총만케 했다. 이로서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의 기나긴 여정이 끝이 났다.

[봉사부서 소개]

봉사부 - 우리교회 '5분 대기조'



우리 교회 안에는 활동하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이번 주에는 교회 행사 때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섬기는 봉사부서를 소개한다. 봉사부에서 하는 매주 사역으로는, 먼저 주일 커피봉사가 있다.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살 속으로 파고드는 아침 6시, 봉사부원들은 물이 끓어 있는지 살피고 주방에서 1층 친교실로 끓는 물을 퍼다 나르고, 2층에서 테이블과 컵을 내다 자리를 만든다. 여자 봉사부원들은 주전자며 국자 등의 집기를 닦고 친교실의 꽃장식도 곁든다. K집사님은 교회 안

밖의 쓰레기 줍는 일도 매주 해오고 있고, 때로 토요일의 결혼식이 지나치게 성황을 이룬 날은 집게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돕는다. 3부 예배전후가 커피봉사가 가장 바쁘고 오후 1시가 지나면 본당 앞의 테이블을 치우고 집기들을 정리하고 로비에 4부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 전기 보온통에 커피를 채우고 종이컵을 준비해 둔다. 커피봉사를 마치면, 식당에 있는 국수 값을 정산하고 사무실에 입금하며, 식당과 주방의 마무리 청소를 돕는다. 보통 식당 청소 마무리를 보면 아침부터 나와 거의 녹초가 되신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 몇 분밖에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봉사부원들은 의자를 올리고 쓸고 닦는 일을 돕는다. 더러는 녹초가 되고 더러는 땀과 물로 흠뻑 젖은 주방부원들 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일 봉사를 마무리한다. 이것만해도 적은 일이 아닌데 이에 더해 S집사님 두 분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또 다른 S집사님 한 분은 양로원에 가서 추가로 더 봉사한다.

매주 이러한 사역 외에 추가적으로 봉사부는 예배부를 도와 매달 한번 씩 성찬준비를 돕는다. 토요일에 나와서 테이블과 성찬기 등을 준비하고 성찬주일에는 예배

가 끝날 때마다 정리를 돕는다. 그리고 봄과 가을 두 차례 행해지는 특별 새벽기도회때 빵과 우유 준비와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 이외에도 특별한 날, 뭔가 나누어주거나 상이 차려지는 날 봉사부는 정신없이 바쁜 날이다. 추수감사주일, 창립기념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성탄절 등에는 사역자 세미나와 각종 이취임식 그리고 체육대회나 음악예배 그리고 교회특별행사때 봉사부는 섬길 부분이 많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지하에 고인 물을 퍼내기도 하고, 눈이 내리면 길을 쓸기도 한다. 이제 봉사부는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 5분대기조의 마음으로 교회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귀한 봉사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항상 더욱 크신 은혜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커피 한 잔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며,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귀한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교회소식}

1. 송구영신예배

12월31일 밤 11시부터 송구영신예배가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내 모든 부속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취학전 아동을
자녀로 둔 성도들은 중예배실이나 소예배실 또는 자모
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목요모임 안내

매주 목요일 7시에 중예배실에서 목요모임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1월 1일(목) 2004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 드립니다. 문동학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30-40대 직장인들과 청년들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하기 원하는 장년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
립니다.

3. 제직수련회

제직수련회가 1월 11일(주일)~12일(월) 이틀간 있을
예정입니다. 새해 제직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리더훈련 반 방학 및 개강 안내

리더훈련반 방학: 2004년 1월 9일(금)까지
개강: 2004년 1월 11일(주일)부터

5. 새벽기도회 안내

12월 31일(수)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1월1일(목) 새벽
기도회만 하루 쉽니다.

6. 2004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2004년 교회학교를 섬길 교사들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합니다.



국수대금은 도움의 작은 손길

매주일 식당에는 국수가 준비된다. 이 국수 한 그릇에 작은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모금함을 놓았다. 국수대금은 불우한 이웃에게 꾸준히 보내져 왔다. 지금
이 모금함은 많은 부분 소홀해지고 있음이 안타깝다. 국수대금을 내는 것이
사랑의 의무라는 마음으로 성실한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 우리 모두 국수대금
을 습관적으로 낼 수 있다면 끊이지 않는 물줄기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소년부]

장애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카드를

12월 21일 소년부 아이들은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예
수님 생일을 축하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 시작하기 전 ‘찬양과 함께 춤을’ 시간을 가져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포크댄스를 추고 서로 인사를 하는 등 성탄의 기쁨을 맘껏 나누게 되었
다. 그 뒤 전도사님께서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의 진정
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씀 해주었다.

예배를 마친 후 소년부 친구들은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았다. 비
록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소년부 친구들의 멋진 아이디어와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기뻐할 수 계기가 되었다.

성경공부 시간에는 무지개 홈스쿨의 장애를 지닌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 위해 손수 카드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진지하게 가위로 오리고 붙이며 정성을 들였고 그 안에 기쁜 성탄을 전하는 편
지도 썼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그들 모두 우리들의 친구이라는 사실을 깨닫
게 되었고 따뜻한 사랑이 무지개홈스쿨에 전해질 생각에 소년부 어린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솟는 시간이었다. 소년부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고 나아갈 수 있어 감사했다.

현승필 교사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
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
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교회학교 예배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
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1	9:30-10:30	영아부실(지하1층)	취학전(7세이하)
통합유아부 2	13:30-14:30	영아부실(지하1층)	취학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취학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중등부	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1부)	7:30-8:30	유년부실(1층)	고등학생
고등부(2부)	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3. 주일 점심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
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
랍니다.

4.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
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주차장을 이용하
여 주십시오.

5.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
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모임 또는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4시까
지, 평일은 (월요일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6.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
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